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이탈리아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

'이탈리아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 이런 제목의 인터넷 '짤'이 돈다. 내용은 이렇다. "1. 파인애플을 올린 피자를 이탈리아인에게 내밀자. 그가 분노하는 모습." "2. 아이스아메리카노 앞에서 이탈리아인이 화내는 모습. 또 다른 건 한국의 한 카페 메뉴인데 'Non Coffee'라는 항목의 메뉴에 주스류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써 놓은 사진."

이 사진을 본 사람들 반응은 여러 갈래다. 일단은 재미있게 보았다고 느낀다. 음, 이탈리아인은 이런 메뉴를 싫어하구나. 하나 알게 되었어. 흥미로운걸. 이 정도의 반응이 제일 많다. 하지만 정말까지 화를 낼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다. 교조적인 게 아니냐, 음식이 다른 나라에 가면 변할 수도 있지 화를 내는 건 뭐냐. 나아가서, 굴이 회수를 건너 탕자가 되더라도 그런 아찔 수 없는 것이지 굴을 모독했다고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확장되기까지 했다.

사실 이탈리아의 원조 피자는 딱 세 가지다. 마르게리타(바질, 모차렐라치즈, 토마토소스), 나폴레타나(안초비가 추가된 것), 마리아나(치즈를 올리지 않고 마늘과 토마토만 넣은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피자는 원조인 나폴리식이다-여담이지만 국가대

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팀이 나폴리다. 이 피자가 이탈리아 전국으로 퍼지면서 다채로워졌다. 자기 지방 특산물을 올리기 시작한 것. 햄, 버섯, 해산물 등 온갖 토핑이 지방별로 등장했다. 그러나, 파인애플 올린 걸 저토록 분노할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할까.

실은, 이 인터넷의 사진은 유머다. 이탈리아인을 살짝 풍자하기도 하면서 한번 웃고 보자는 의미의 가벼운 의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예능을 다큐로 받치는 말라는 배경 해설이 가능하다. 커피도 그렇다. 아메리카노란 이탈리아에 진주한 미군들이 진한 에스프레소를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며 생겼다는 설이 있다. 아메리카노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식, 미국인어란 뜻이다. 원래 이탈리아에 없던 커피란 말이다. 한국인은 에스프레소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 문화적 풍토가 애초에 다르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미국식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로 접했다 때문이다. 숭늉처럼 적당히 자극이 있고, 너무 쓰지 않으며, 오랫동안 대화하며 카페에서 마시기엔 아메리카노가 적격이었을 것이다. 이걸 두고, 한국인은 이탈리아 커피 맛을 모르냐거나 무시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음식 문화는 문화접변 현상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족적을 남긴다.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 우동, 짜장면은 한국인이 수많은 외부 권력과 접촉했던 파란만장한 역사를 증명한다. 이 음식들은 이른바 '오리지널 원조'와 많이 다르다. 그걸 원조쪽이 비난하면 많이 곤란하다. 문화는 이전되고 수용하면서 처지에 맞게 바뀌게 마련이니까. 그리하여 그것이 더 극적인 제3의 오리지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흥미진진해진다. 짜장면은 청나라 사람들이 전해 주었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 국수다.

바라건대 이렇게 변화 수용된 곳에 원조도 같이 건너와서 부대끼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 이탈리아 원조 피자도 에스프레소를 즐기, 한편으로는 고구마나 매운 소스를 얹은 한국식 피자가 경쟁하는 그림이 멋지지 않은가. 누군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다른 이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 아니 오히려 서로 바라보며 웃어 주는 풍토가 인간이 바라는 세계일 것이다. 폭력은 필시 오해와 갈등에서 시작되곤 한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인터넷 짤'이 불러온 이야기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이태희 보리안과병원 원장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 범인은 안질환

조직인데, 눈물이 각막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면 눈이 무겁고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런 증상 없이 단순히 머리만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다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안구 건조증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 보고 안과 진료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눈이 피로하면 머리가 아프다, 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근사·원시·난시·노안 등 눈의 굴절 및 조절 이상은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눈 피로가 두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눈은 모양체 근육을 이용해 수정체의 볼륨을 조절하여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근거리 작업을 오래하게 되면 모양체 근육 긴장도가 높아져 피로도가 커지고 조절력이 저하된다. 특히 머리의 앞 부분이 아프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통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근거리를 볼 수 있는 원시 안경(돋보기)을 착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녹내장의 형태 중 하나인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눈에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 안압이 오르고, 이로 인해 시력 저하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급성 안압 상승은 두통뿐만 아니라 구토까지 나타나서 때로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처음에 응급실에 가기도 한다. 두통을 치료하는 데 시간을 쏟느라 녹내장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환자도 있다.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함께 안구 통증, 시력

저하 동반된다면 안과에서 안압을 비롯한 녹내장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두통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안경을 짤 수 있다. 안경 중에서도 자신의 눈과 맞지 않는 안경은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함을 준다. 특히 근시 도수가 과하게 들어간 안경은 먼 곳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대신 안구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가 과교정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시력 기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에 안경을 자신의 눈에 맞도록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눈이 계속 성장하는 소아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성인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눈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엔 시력이 좋은 눈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이 나쁜 눈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좋았던 눈의 피로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양쪽 눈으로 잘 보아야 사물의 입체감을 잘 느낄 수 있는데 한 쪽 눈만 잘 보이면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모두 떨어지고 두통이 동반될 수 있다.

이처럼 두통은 다양한 안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잦은 두통과 함께 안구 통증이 동반된다면 위에 언급한 안질환이 발병하였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린다.

社說

대기업에 유리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손봐야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시민 아홉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재해 관련 감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 방식 덕분에 별다른 제재 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유지한 것이다.

조소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시된 '20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는 10위로 한 계단만 하락했다.

지난해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순위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재해를 관련 감액이 없었다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에서는 평균 재해율이 1배 이상 2배 이내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2배를 초과한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다. 한데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로

인한 감액은 '근로자'에만 적용하고 있어 다수의 '시민'만 사망한 학동 4구역 붕괴 사고는 감액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육이 사망자 감액 규정도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사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중소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대형 공사를 주로 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중대 재해를 줄이거나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때마다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편에 착수했다고 하니 이러한 맹점들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18 광주'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필요하다

광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도시라고 하는 것은 5·18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광주를 볼 모델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5·18을 더 이상 우려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5·18의 강성 이미지가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5·18을 '노잼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단어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5·18 정신'이야말로 광주만의 훌륭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침 아시아 대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홍콩에 있는 본사를 광주로 옮기기로 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가 광주에 동지를 틀면 광주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5·18 자산을 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에는 이렇다할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이 없다. 매년 5월에 사적지에서 해설사가 현장 설명을 하거나 전일빌딩245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재현하는 수준이다. 서울이 서대문형무소를 활용해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4·3의 도시 제주를 조레로 제정해 5년마다 다크투어리즘 육성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대비된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수용소와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 파크 등 해외에도 다크투어리즘으로 명성을 얻은 곳들이 많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다크투어리즘에 광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5·18 등 민주주의 자산과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주인권 기념 파크'가 광주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남들보다 꽤 늦게 스마트폰 사용자가 됐을 때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게 때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처음 구입한 이모티콘은 좋아하는 조경구 만화가의 원작에서 따온 음식 이모티콘 '오므라이스 잼잼', 햄버거·초밥·김밥·커피 등 온갖 음식 이모티콘을 문자와 함께 보내고 나면 왠지 분이 좋았다. 요즘엔 토끼 이모티콘을 즐겨 사용한다. 귀엽기도 하고, 때론 주책맞기도 한데 어떨 땐 내 마음을 딱 표현해주는 것 같아 설명이 필요 없다.

세계 첫 이모티콘이 온라인에 등장한 지 11년 19일로 40주년이 됐다. 이모티콘 40년

인 이모지(emoji)로 발전했다. 팔면 교수는 온라인상의 농담 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그는 "텍스트만 쓸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몸짓이나 표정을 알 수 없어 농담 여부를 가려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 '글'만 보내지 않는다. 축하하고, 위로하고, 즐거운 마음을 전할 때 이모티콘을 함께 보내면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다.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그런 마음이 담긴 이모티콘을 지인에게 보내고 나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듯하다. 때론 냉소적인 이모티콘 '흑흑'도 이모티콘 '흑흑' '모든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지난해말 국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7000억 원, 10년간 누적 발행량은 2200억 건에 달했다.

팔면 교수는 "내 전공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부고 첫 줄은 이모티콘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모티콘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모티콘이 갖고 있는 놀랄 만한 효과를 알고 있다면 다들 수용하지 않을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모든 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지급해야

257만 4907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95만 9950명으로 37.3%이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대비해서 취업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높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직업의 경험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곳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72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만 9734명이다. 그중 광주광역시에는 29개소에서 852명의 장애인이 근로 또는 훈련을 받고 있다. 매년 직업재활시설이 증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 장애인은 많지 않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52만 7000원에 불과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자료)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의 급여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평균 금액은 이러한 실정이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종 장애인들이 생산 활동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에 필요한 설비나 근로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고, 종종 장애인이 90%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책임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에게 떠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근로 능력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국가가 보충 급여를 지급하여 그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2019년부터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근로 장애인에게 보충적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대하여 하루빨리 모든 근로 장애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 현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직업 활동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수준을 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매출, 원자재 구매, 부가세 납부, 장애인 급여 등 경제적 생산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으로 인해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이 가능해지고, 장애인 자신 또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되어 당당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만큼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혜연 광주키리타스근로시설 원장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은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와 제3조(기본 이념),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는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는 기능적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사회통합은 이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보호 중심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립에 방향성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 시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을 내릴 수 있었다. 혹은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 재활"이라고 말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직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 4504만 9000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2869만 8000명으로 63.0%이고, 장애 인구